

#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

현황 사진

위치 및 지형

건물의 배치 및 현황

건축적 특성

연혁

활용방안



## 1.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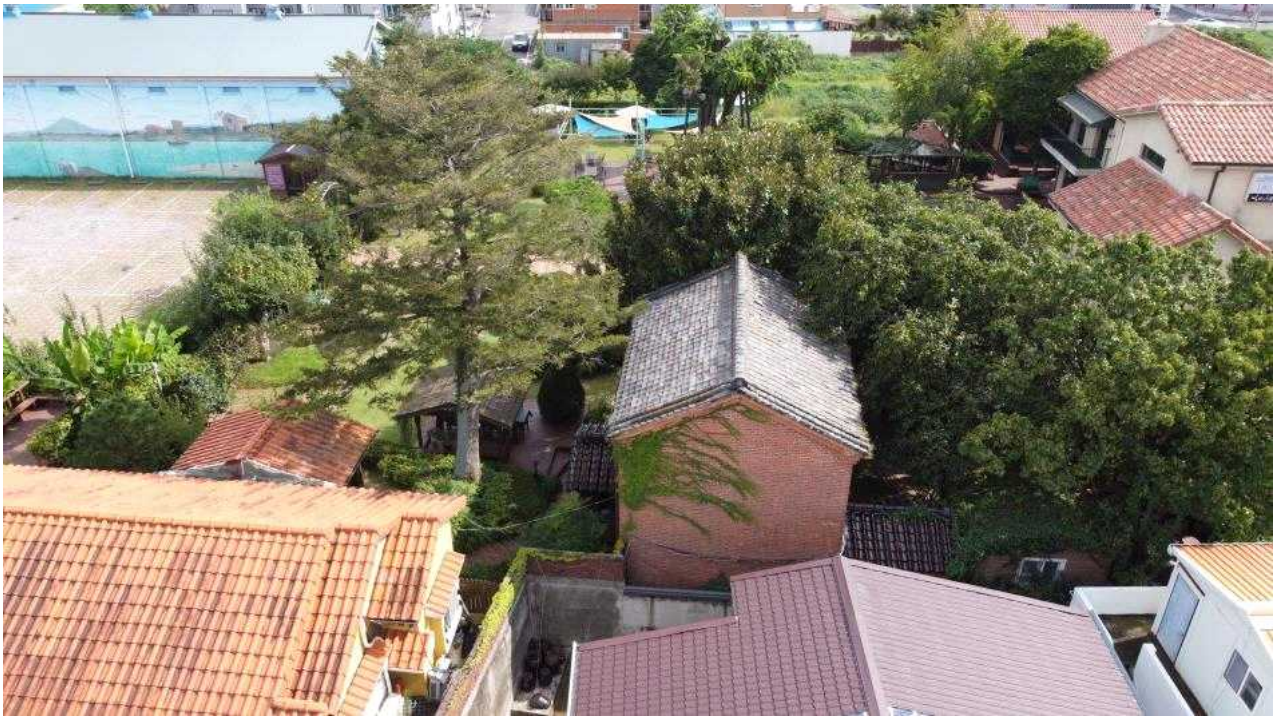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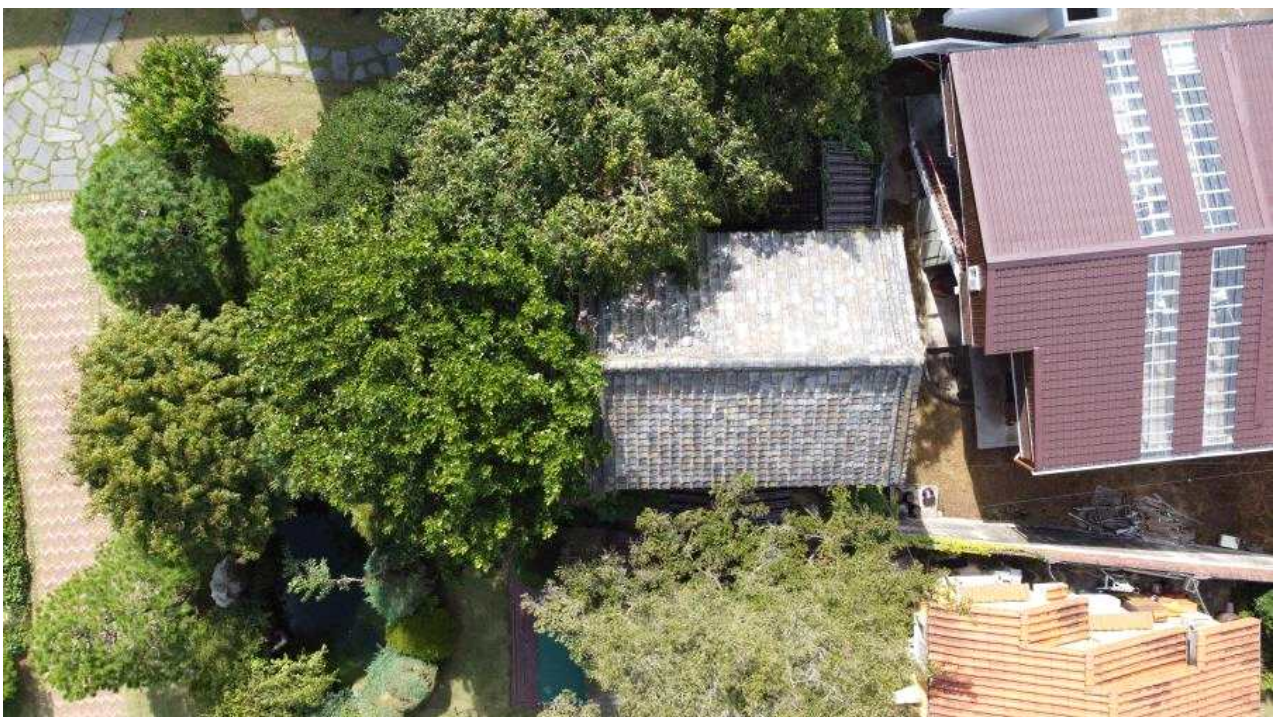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항공사진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항공사진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항공사진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전경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전면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전면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측면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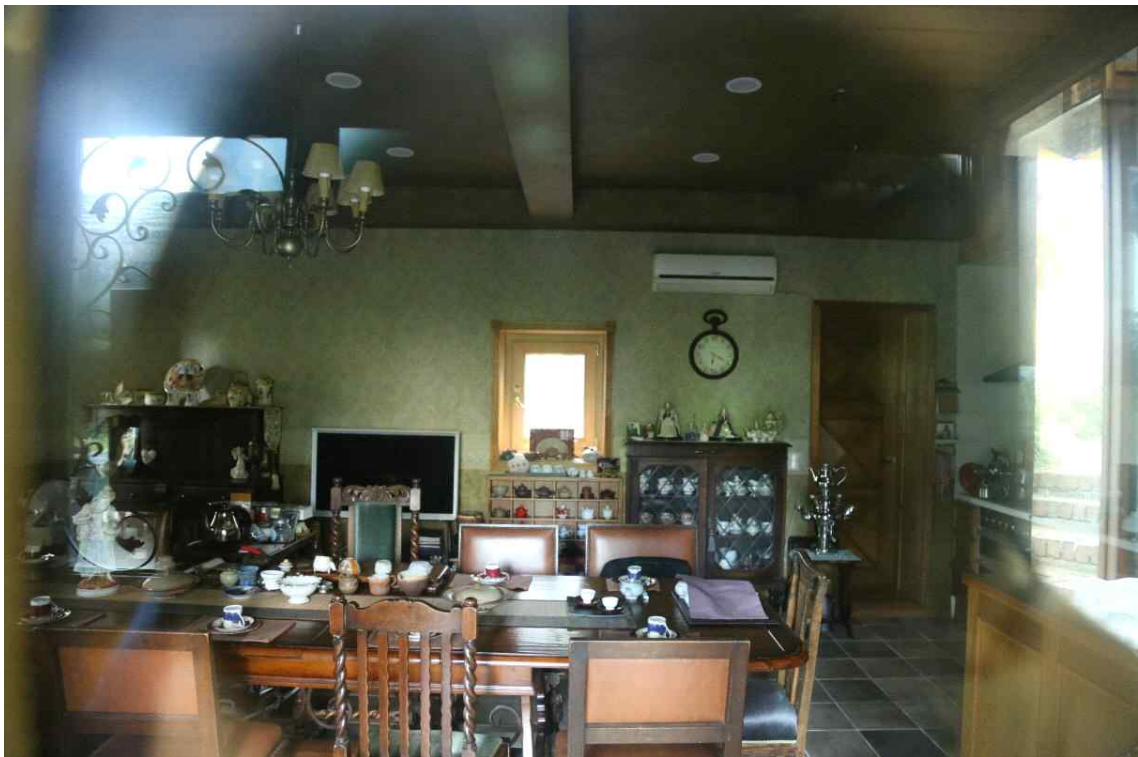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측면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출입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내부





본 건물은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에 있다. 1909년에 설립한 동양척식주식회사 나주시 영산포 출장소 사무실 건물 중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창고전용 건물이다.

## 1. 위치 및 지형<sup>1)</sup>

1) 나주시 홈페이지 지명 유래  
집 참조. ([www.naju.go.kr](http://www.naju.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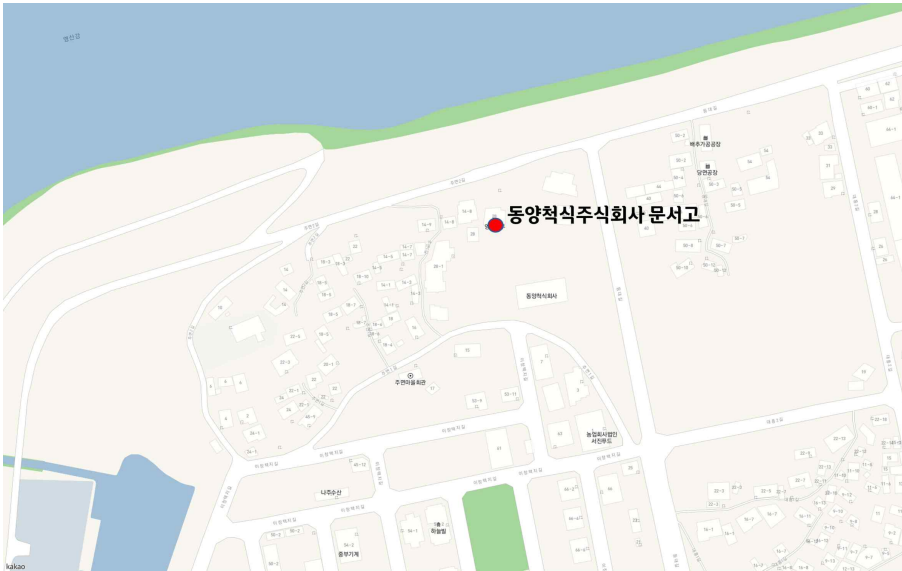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건물은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306-13(주면 2길 28)에 있다. 이 건물이 위치한 나주 궁삼면(영산세자 왕곡) 일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고종의 후궁인 엄귀인이 거처하던 경선궁(慶善宮)의 속지였다.

본 건물이 있는 나주시 영산동은 과거 영산포라고 불리던 곳으로 바닷길로 연결된 당시 큰 포구였다. 일제가 나주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탈해 가려고 목포, 군산과 함께 전략적으로 개발했던 지역으로 각종 금융기관, 관공서, 기타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었다. 나주 영산포 선창가 인근에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파노라마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위치도

## 2. 건물의 배치 및 현황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건물은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1920년대 목포로 사무실이 옮겨지기 전까지 문서를 보관하던 창고전용 조적조 건물이다. 현재는 문서를 보관하던 지상 1층의 붉은 벽돌집인 문서고와 숙직실만 남아있다.

건물은 대지면적 744㎡ 연면적 64㎡ 건축면적 42.98㎡ 지상 1층 연와조 건물로 붉은 벽돌로 마감한 조적조 외벽은 원모습이 잘 남아있다. 당시 문서를 보관했던 지상 1층의 조적조 건물이지만 외관상 2층 건물로 보인다. 건물의 형태는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주 출입구는 남쪽에 두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전경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전경



### 3. 건축적 특성

본 건물은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창고전용 건물이다. 주 구조는 붉은 벽돌 연와조이다. 건물 지붕은 일식 시멘트기와 지붕으로 맞배지붕 형태이다. 붉은 벽돌 외형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진다. 현재 건물 주변의 정원을 활용해 찻집 겸 레스토랑 등 상업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건물의 보존상태가 매우 좋고 외관의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과거 조사자 기록에 의하면 1979년 내부 천장 보수, 1992년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 개량을 했다고 한다. 과거 원형 외관의 변화는 없고 내부 창문 1개소를 새로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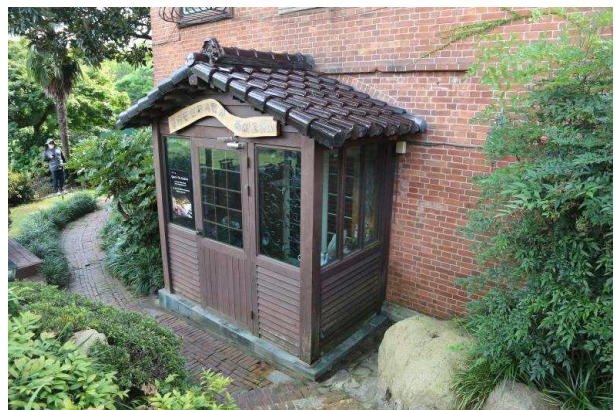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외관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전면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측면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출입구



## 4. 연혁

1910년 7월, 일제는 고종의 후궁인 엄귀인이 거처하던 경선궁의 속지였던 나주 공삼면(영산세자·왕곡) 일대를 강제로 매수 후 일제는 공삼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동양척식회사 사무소를 이곳 나주 영산동에 개설하였다. 본 건물은 그 당시 개설된 영산포 출장소 사무실 건물로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건물이다. 현재는 문서고와 숙직실만 남아있다.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16년 1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물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1920년대 목포로 사무실이 옮겨질 때까지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문서를 보관하던 지상 1층의 붉은 벽돌집인 문서고와 숙직실만 남아있다. 1946년 반정식에게 소유권 이전 후 현재까지 소유 중인 상태이다. 지금은 개인이 매입 후 벽돌의 문서고를 중심으로 주변의 정원을 활용해 찻집 겸 레스토랑인 영산나루 건물로 쓰이고 있다.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16년 1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내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_안내판

## 5. 활용방안

1920년 이전에 지어진 문서고 및 창도 용도로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이다. 건물 외형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흔치 않은 사례로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지역 사회의 여러 활동 장소로 활용하거나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나주 영산포는 다수의 관광지 영산포,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 일본인 지주가옥 등이 존재하는 만큼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나주 영산포 근대화 거리와 관련된 각종 안내 시설 혹은 동양척식회사 관련 시설물이라는 역사성을 살려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 및 역사 교육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 부록 개요서

문화재명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문화재지정별	비지정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306-13(주면2길 28)
연면적	대지면적 744 ㎡, 연면적 64 ㎡, 건축면적 32 ㎡
건물 수량	1동 / 지상 2층
분류	업무시설
주요 구조	조적조
주용도	업무시설
주요외장재	조적조
지붕재	시멘트 기와
창호	목재 / 유리
건립연도	1920년대
활용방안	체험공간으로 운영

